

18세기 후반 清代 索倫營의 성립과 붕괴

남상궁*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소론[索倫, Solon]족의 西遷戍邊
3. 소론[索倫]營의 성립
4. 소론영의 換防과 駐戍카툼
5.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청의 건륭20년(1755) 청조는 北疆(天山山脈 이북을 지칭한다)의 준가르[準噶爾, Jungar]부를 멸망시키고 이어서 건륭24년(1759)에는 南疆(天山山脈 이남을 지칭한다)의 대소 호자의 반란¹⁾을 진압하여 천산 남북일대 즉 지금의 신강을 중국의 영토로 확정하였다.

이후 몽골계 유목민족이 거주하던 북강은 소위 ‘자삭크 制’를 남강에

* 안양과학대학 외국어학부 중국어과 교수

** 소수민족어로 된 인명, 지명 기타 명사는 한글 轉寫를 한 뒤 [] 속에 중국어 전사, 영문 전사를 하였고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한글전사만을 사용하였다. 다만 한글 전사나 영문 전사를 하기 어려운 것은 그대로 중국어 표기만을 하였다.

예 ; 소론·시버[索倫錫伯, Solon Xibe] → 소론 시버, 준가르[準噶爾 ; Jungar] → 준가르

1) 남강의 무슬림 집단인 아팍 호자 가문의 Burhan-ad-Din과 Khoja Jahan 형제는 준가르의 갈단체렁에 의해 이리에 유폐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준가르의 멸망으로 남강에 돌아가 일으킨 반란을 중국에서는 ‘霍集占의 난’이라고 한다.

서는 ‘베크制’를 실시하여 回部를 통치하였으며 우룸치 동쪽인 동부신강은 한족의 통치조직인 州縣制를 실시하였다. 오랜 숙적으로 明·淸이래 중국의 우환거리였던 서 몽골의 몰락, 그중에서 최후의 유목왕국으로 불렸던 준가르의 멸망은 신강 전역이 청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고 동아시아의 지배질서가 재편되는 계기가 되었다.²⁾

북강의 경우 준가르는 절멸하다시피 하여 말 그대로 무주공산의 허허벌판이 되고 말았다.³⁾

그러나 이 지역은 러시아가 끊임없이 노리는 전략적 요충이고, 준가르 분지의 고르반 통고트 사막을 제외하면 카자흐, 키르기즈를 비롯해 청 제국에 복속하지 않은 유목민들이 호시탐탐노리는 목초지일 뿐 아니라 초원실크로드를 통해 중앙유라시아로 연결되는 무역로인 것이다.

따라서 청조도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무슨 수를 쓰던지 지켜야 할 전략적 요충지였다.

청조는 무주공산과 같은 북강을 지키기 위해 타지에서 많은 병력을 충원하고 이들을 ‘移民實邊’의 목적을 위해 屯田 및 駐防과 換防의 임무를 수행할 이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지고 이 대상자로 동북의 통구스계와 몽골계 민족이 선택된 것이다.

이들 통구스계 민족 중 이른바 소론[索倫, Solon]⁴⁾족은 에벤키[鄂溫克, Evenki],

2) 片岡一忠; 清朝新疆統治研究, 雄山閣出版社, 東京, 1991, p.39.

清朝는 천산남로의 위그르 족 이슬람 지역을 ‘回部’라 하였으며 천산이북 준가르 세력권을 ‘準部’라고 하였다

자사크[扎薩克, jasak]; 법령을 의미하는 몽골어 “jassa”에서 유래한 것으로 정사를 관리 집행하는 執政貝勒과 같은 것이며, 청조의 세력이 몽골을 장악하면서 정비되다가 乾隆(1736~1795)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자사크는 세습으로 旗의 長을 맡으며 봉건영주의 성격을 가지고 旗地 전체의 영유권을 가지고 清朝의 會盟에 참가하여 군사적 협력과 北京에 參觀하여 年班, 儀衛, 行走 등의 의무를 행한다. 理藩院에 요구하여 부하관원을 임면하고 부하 영민들에 대해 세수, 力役, 재판을 행한다.

(矢野仁一; <近代蒙古史研究>, 弘文堂 昭和 10年 11月 1917, p.85)

3) 計數十萬戶中, 先痘死者十之四, 繼竄于俄羅斯, 哈薩克者十之二, 卒殲于大兵者十之三(魏源의 <聖武記> 卷四 外藩)

오로촌[鄂倫春, Orochon], 다구르[達斡爾, Daghur], 시버[錫伯, Xibe]족이 주류를 이루었고, 몽골系로는 차하르[察哈爾]와 오이라드[厄魯特, 額魯特, Oirad]족을 비롯한 군소 몽골족이었다.⁵⁾

- 4) 소론은 명말 청초에 출현한 명칭으로 본래는 흑룡강 지역의 토착 민족이다. 명말 청초에 이미 “索倫部”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는 한 민족의 名稱이라기 보다 여러 민족의 合稱으로 에벤키[鄂溫克, Evenki], 다구르[達斡爾; Daghur], 오로촌[鄂倫春, Orochon]족이나 이들과 이웃한 인근 부족을 가리킨다(不問部族概稱索倫, 而黑龍江人居之不疑, 亦雅喜索倫自號說者, 謂索倫驍勇聞天下, 故借其名以自壯—何秋濤의 <朔方備乘> 卷2).

많은 학자들은 “索倫部”란 에벤키[鄂溫克, Evenki]를 포함한 다구르[達斡爾, Daghur]와 오로촌[鄂倫春, Orochon] 등을 포함하는 민족이란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청조의 八旗에 편성된 후 소론부의 개념에도 변화가 왔다. 일부분의 소론병과 그 가족들이 이리에 파견되어 索倫營을 조성할 때 처음에는 에벤키와 다구르족이 중심이었으나 뒤에 시버[錫伯, Xibe]족이 참여하였고 현재 塔城縣의 達斡爾족과 霍城伊車嘎善錫伯族鄉의 시버족과 다구르족은 이들의 후손이다.

伊犁로 이주하여 駐防의 임무를 담당한 索倫營의 군민들은 원래 흑룡강 일대에서 성장한 민족으로 淸初에 러시아의 침입에 밀려 嫩江 일대로 이주하였다가 청조의 “布特哈八旗”에 편성된 민족이다. 이중 일부분은 청조의 披甲兵으로 복무하거나 나머지는 청정부에 貂皮를 공납하는 “부트하 소론[布特哈索倫, Butha Solon]”이나 “부트하 다구르[布特哈達斡爾, Butha Daghur]”라고 하였으나 일반적 호칭은 “부트하 소론[布特哈索倫, Butha Solon]”이었다.

그러나 부트하 소론[布特哈索倫, Butha Solon]이라 할 경우 구성원이 에벤키[鄂溫克, Evenki]족이나 오로촌[鄂倫春, Orochon]이 주류를 이룬 부족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은 “布特哈八旗”에 소속되어 총관의 통제 하에 있었으며 아울러 黑龍江將軍이 관할하였다.

1833년 伊犁將軍 特依順保는 술한 전란과 질병 및 빈곤으로 인해 다구르 족의 인구가 격감하여 소론영의 유지가 어렵게 되자 道光帝에게 상주하여 18~23세 사이의 건장한 시버족 청년들을 보충해 줄 것을 상주하고 이에 윤허가 내리자 두 번에 걸쳐서 시버족 청년들을 소론영에 편입시켰다. 따라서 본래 소론영을 구성하는 다구르, 에벤키, 오로촌 족 이외에 시버족이 대거 가세함에 따라 소론시버[索倫錫伯]營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 5) 당시에 伊犁將軍 관할아래 駐防兵으로서 만주병과 몽골 병을 충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리장군 휘하에는 통상 滿蒙八旗兵이라고 칭하는 滿蒙兵과는 별개로 개개의 부족이름을 부대명칭으로 사용하는 八旗兵이 있었는데 통구스계의 소론[索倫; 이 경우는 에벤키와 오로촌족을 말함], 다구르[達斡爾], 시버[錫伯], 몽골계의 차하르[察哈爾], 오이라드[厄魯特]병 등 20,000여 명의 병력이 그들이다.

소론병과 다구르 병은 黑龍江, 시버 병은 盛京, 차하르 병은 張家口, 오이라드 병은 張家口, 熱河등지에서 각각 가족을 거느리고 이주했다.

이들 소수민족 부대를 이주시킨 배경은 (1) 滿蒙八旗兵의 절대수 부족, (2) 이리장군 휘하에 한족으로 구성된 綠營兵을 배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투력이 뛰어난 통구

2. 소론[索倫, Solon]족의 西遷戍邊

건륭20년 복강의 준가르 제국을 멸망시킨 청조는 무주공산이 되었으나 러시아와 카자흐 등의 유목민족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준가르 초원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지키기 위해 병력조달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차하르[察哈爾, Chakhar]와 오이라트 몽골, 만주족과 아울러 동북의 소수민족을 대거 調發하여 강제 이주시키게 된다.

건륭황제의 명에 따라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우선 “부트하 소론[布特哈索倫, Butha Solon]”이나 “부트하 다구르[布特哈索倫, Butha Daghur]”부 중에서 1,000명을 선발하여 소위 携眷駐防의 형태로 이리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황제가 黑龍江 將軍에게 上諭를 내리고 軍機處의 咨文을 거친

스 系의 민족을 <新滿洲>라고 하여 만주족에 준하는 지위를 주고 팔기병으로 충당한 것이다. 몽골계 민족은 귀순한 시점여하에 따라 蒙古八旗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했다. (片岡一忠; 앞의 책, pp.66~67).

그러나 확실한 논거를 찾을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이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즉 차하르 몽골은 청나라에 끝까지 반항을 했던 몽골족이고 홍타이지(太宗)시절 린단 칸[林丹汗]이 죽고 그 부족이 항복한 뒤에도 끊임없이 모반을 획책한 부족이다. 특히 강희 시절 “三藩의 亂”이 일어나 청조가 누란의 위기에 있을 때 <부르니의 반란>이 일어나 청조는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다. 물론 단기간에 이를 평정하여 위기를 넘겼지만 청조는 이때의 원한을 잊지 않고 이들의 구심력 소멸을 위해 다른 몽골계 민족을 차하르 족과 뒤섞어 놓고 張家口 일대로 이주시키는 한편 청 황실의 각종 잡역 등 거의 노예와 같이 부러먹었다. 따라서 다른 민족이 준가르 멸망이후 주로 駐防과 換防을 위해 신강에 보내진 것에 비해 이들은 처음부터 대소 반란 토벌 등의 전투 목적으로 보내졌다. 시버 족의 경우도 누르하치에게 끝까지 반항했던 9개 부족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신강의 오지에 휴권 주방이란 이름 아래 보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러바 통구스계의 소론, 다구르 족은 만주족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미개한 소수민족에 지나지 않지만 인접한 만주족과 친연성이 깊고 문화적으로 만주족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들은 전통적으로 수렵을 중시한 용맹한 부족이어서 이들의 힘이 필요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아무튼 이들 소수민족들은 신강뿐 아니라 건륭이후 중국전역에서 끊임없이 벌어진 각종 전역에 동원되어 많은 희생을 겪었다.

達斡爾族簡史 編寫組; <達斡爾族 簡史>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 pp.53~54.

錫伯族簡史 編寫組; <錫伯族 簡史> 北京, 民族出版社 1986, pp.41~45.

다음 서천에 대한 당위성과 응분의 대가에 대한 사상교육이 이어졌다.⁶⁾

이때 청조는 3년 마다 교대를 하는 換防을 약속했다는 설도 있으나 이에 대한 사료상의 근거는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동북으로 귀한 한다는 것은 전제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족을 거느리고 간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영구 屯田과 駐防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우선 “부트하 소론”부에서 500명 “부트하 다구르”부에서 500명을 선발하고 總管 1명, 副總管 1명, 佐領 10명, 驍騎校 10명을 배치하여 행군의 지도부로 삼았다. 부대를 몇 개로 나누어 움직일 시간, 이동시 가져갈 공구 등의 준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 방향을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부대를 6개의 旗로 나누고 3개 旗는 부트하 다구르의 500명, 3개 旗는 부트하 소론의 500명으로 구성하였다. 다시 3개 旗를 두 부대로 나누어 각 부대 마다 모두 가족을 거느리고 동시에 출발하였다. 군관민의 복식, 음식, 병기제조 비용 및 교통공구, 텐트 등의 문제를 모두 세밀히 검토한 뒤 국고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였다.

“管帶携眷移駐伊犁一千名索倫兵遷往之總管一員，以副總管作爲委營總一員，佐領十員驍騎校十員應支給伊等之整裝等項銀口糧遵照軍機處議奏之例，統共二十二名官員按其各者職銜支給一年俸祿共計一千八百八十五兩；一千戶兵丁，按每戶各賞銀三十兩計，共支給銀三萬兩；因兵丁不携帶跟役按每人各賞置辦兵器銀

6) 부트하[布特哈, Butcha]라는 말은 만주어로 “사냥, 어렵”이란 의미이다. 청조의 내무부에는 사냥, 어려움을 전담하는 衙門을 부트하 야문[布特哈衙門, Butcha i Yamun]이라 하였다(商鴻達, 劉景憲, 季永海, 徐凱 編著；〈清史滿語辭典〉, 上海古籍出版社, 1990, p.46).

“舊在白山一帶虞獵爲生者謂之布特哈” 薩英額, 〈吉林外記〉 卷三.

陳舜臣에 의하면 소론족보다 일년 늦게 동북의 성경에서 신강 이리에 도착한 시버족도 이들 소론족에 한 것과 비슷한 약속을 한 것 같으나 이런 약속이 물론 지켜진 것은 아니다. 陳舜臣；〈중국의 역사〉 10, 한길사, pp.117~119.

충분한 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고 내용도 다소 황당하지만 시버족의 서천에 관한 기록으로 아래와 같은 기록도 있다.

—그들은 10년 기한으로 교대시켜준다는 약속아래 건륭제의 명을 받아 국경수비를 위해 파견되었으나 처자식과 재산을 함께 가져갔기 때문에 여정은 3년여에 걸쳤다.

연한이 찾을 때 황제는 그들을 완전히 잊어버려 그 먼 주둔지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Wu Ai Xin(吳藹新)；Turkistan Tumult(新疆紀遊), 1940.

十兩計, 共支給銀一萬兩; 總管, 以副總管作爲委營總每人各給馬十四, 佐領每人各給馬十四, 驍騎校每人各給馬六匹, 一千戶兵丁大小人口共二千九百九十八名, 每口各給馬一匹, 共二千九百九十八匹, 按每馬折給價銀八兩計, 共支給銀二萬三千九百八十四兩; 一千戶兵丁, 每戶給駝一只, 供給駝一千匹, 按每駝折給銀十八兩計, 共支給銀一萬八千兩; 每戶各給帳房一頂, 鍋一口, 共計應給帳房一千頂, 鍋一千口, 按每帳房價銀十兩, 每口鍋價銀二兩計, 共支給銀六千兩; 總管, 以副總管作爲委營總每月各支給鹽菜銀六兩, 各拔給跟役六名, 佐領每月各支給鹽菜銀四兩, 各拔給跟役四名, 驍騎校每月各支給鹽菜銀二兩, 各拔給跟役二名, 兵丁每月各支給鹽菜銀一兩五錢, 官員之跟役每月每名各支給鹽菜銀五錢, 共支給鹽菜銀三千二百十六兩; 官員之跟役七十二名, 按每各賞銀二兩計共支給銀一百四十四兩。以上共支給官員, 兵丁, 跟役九萬三千二百二十九兩。一千戶兵丁之大口二千四百五名, 小口四百三十三名, 連同管帶前往之官員及其跟役七十二名, 共計大小人口二千四百九十九名。按大口每月各支二石四升九合, 小口減半支給計, 應支兩月口糧共一千三百五十二石三斗一升九合。所有應支銀兩, 口糧, 均由庫存備用銀兩, 倉存糧食內地拔⁷⁾

일체의 준비가 끝난 뒤 1763년(乾隆28년) 4월 10일 봄 부트하 소론[布特哈素倫]의 3개기 500명의 병정과 그 가족 1421명(군민 총 1921명)으로 구성된 제1대는 11명의 總管, 佐領, 驍騎校의 인솔 아래 멀고 먼 서역 이리를 향하여 기정하였다.

그들은 먼저 몽골고원으로 나아가 8월 중순에 우리야수테이에 도달하였다.

烏里雅蘇台定邊左副將軍⁸⁾ 칭군잡[成袞扎布, Chinggunjab]은 이들을 보살피

7) 何秋濤의 朔方備乘 卷二.

8) 우리야수테이[烏里雅蘇台, Uliyasutai]는 현 몽골국 자브항 아이막의 省都로서 청조의 준가르 정벌시 전진기지 역할을 하였고 定邊左副將軍이 좌정한 알타이의 중요한 군사 요충지이다. 소론 족이나 시버족이 서천을 할 때 여기를 반드시 통과하였고 1881년 러시아와 이리조약을 맺은 뒤 이를 개방하였다. 이곳에 좌정한 定邊左副將軍은 할하, 흠드, 우랑하이 전역의 군사정치를 총괄하였다. (아시아歷史事典VI-p.420, 平凡社 1985年)

고 식량과 찻입, 鹽菜銀, 낙타와 말 등을 공급하였다. 잠시 휴식을 취한 선발대는 啓程을 계속하여 연말에 伊犁將軍 明瑞는 부대를 이끌고 먼저 도착한 總管 努門車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하들을 파견하여 신강서북부에민[額敏]河에 도달한 서천부대 전원을 맞이하고 힘든 여정에 지친 서천부대원에게 각종 보급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다시 관병을 보로타라[博羅塔拉]에 머물고 있는 본대에게 보내 구휼하였다.

이로서 西遷부대 제 1진은 1764년 정월 19일 이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제 1진이 출발한 뒤 24일 뒤 건륭28년 5월 3일 부트하 다구르로 구성된 3개 旗의 500명은 그 가족 1471명(군민 총 1917명)은 제 2진을 구성하여 副總管, 佐領, 驍騎校등 11명의 간부들의 영도아래 기정하였다. 이들은 몽골고원을 건너 계속 서진하여 9월에 우라이수테이에 도착하였다. 당시 몽골고원은 이미 초겨울에 접어들어 초목은 말라서 다 떨어지고 뼈를 저리는 추위가 닥쳐왔기 때문에 이들은 우라이수테이 부근에서 월동을 하였다.

당시 부대를 이끌었던 부총관 사르무르트[色爾默勒圖]는 第二陣이 당면

중국전역의 駐防將軍職은 盛京, 吉林, 黑龍江, 江寧, 杭州, 福州, 廣州, 荊州, 西安, 成都, 寧夏, 綏遠城, 伊犁, 定邊의 14명이나 청조발상지인 東三省에 위치한 盛京, 吉林, 黑龍江의 세 장군이 10,000명 이상의 팔기관병을 거느린 이외에 이리장군 휘하의 관병은 駐防兵, 換防兵을 합쳐 무려 26,000~27,000명을 웃돌았는데 이는 그 관할 지구가 광활한 것이 다른 장군부에 비할 바 아니다. 이들 장군 중 대부분이 중국내지 18省에 배치된데 비해 藩部에 설치된 장군은 綏遠城 將軍(엄밀히 말하면 수원성은 山西省에 있다)과 定邊左副將軍(동청 烏里雅蘇台將軍) 그리고 伊犁將軍 뿐이다. 綏遠城 將軍과 定邊左副將軍은 휘하의 병사보다 많은 몽골족 자삭크 휘하의 부대를 감독하는 데 대해 伊犁將軍은 몽골계부족, 하미 투르판의 回王 자삭크 휘하의 부대와 많은 八旗兵, 綠營兵을 직접 통괄하고 있었다(片岡一忠; 清朝新疆統治研究, 雄山閣出版社, 東京, 1991, pp.66~67). 1731년(雍正11年)사인 노얀 부의 체링[策棱]이 준가르를 격파한 공에 의해 定邊左副將軍에 보임된 것이 시초이다. 定邊左副將軍은 일명 烏里雅蘇台將軍이라고도 불렀는데 副將軍이란 명칭이 붙은 이유는 불명하다.

단지 雍正시대 平郡王 福彭과 건륭시대 남강을 평정한 兆惠가 定邊大將軍이란 호칭을 사용한 것을 보면 중앙 군기처와 관계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우라이수테이 定邊左副將軍은 伊犁將軍, 綏遠城 將軍과 더불어 중국의 外藩에 배치된 三 將軍府의 하나이다.

한 문제점과 실상을 칭군잡[成衮扎布]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식량보급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의 행군노선을 변경할 것을 진언하였다.

칭군잡의 배려에 따라 제 2진은 우리야수테이를啓程한뒤 바르쿨[巴里坤]을 거쳐 우룸치[烏魯木齊]에 이르는 코스를 선택하게 되었다.

코스 변경에 따라 건륭29년 3월 중순 우리야수테이를 출발 4월 26일 바르쿨에 도착하고, 식량보급과 피로회복을 위해 반 개월을 휴식한 뒤 5월 11일 출발하여 6월 19일에 우룸치에 도착하였다. 우룸치에서 4일을 쉬 뒤 다시 기정하여 7월 26일 이리[伊犁]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제1진은 2진 보다 24일 먼저 출발하여 9개월 여 만에 이리에 도착하였으니 1년 3개월여의 여행 끝에 비로써 이리에 도착한 것이다.

가장 빠른 우리야수테이 →알타이산맥 →보로타라 평원 →이리에 이르는 코스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사료 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9월에서 3월 까지 한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우리야수테이에서 휴식했으나, 3월 이라 해도 무서운 추위로 가득찬 알타이 산맥을 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원활한 식량공급을 위해 남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로서 “부트하 소론”, “부트하 다구르”의 장병 1022명(간부급 22명을 포함)과 그의 가족들 3,860명은 온갖 간난고초를 겪은 끝에伊犁에 도착한 것이다.

3. 소론[索倫]營의 성립

당시伊犁將軍⁹⁾은 소론과 다구르 족의 생활방식에 따라 고르코스[霍爾

9)伊犁將軍은 신강에서 군정 일체를 총괄하는 최고실력자였다. 1757년 준가르 정벌이 끝나고 그 후의 경영을 위해 1760년 厄魯特 總管1員이 군정장관으로서伊犁에서 집무한 이래 다시伊犁辦事大臣으로 개명하고, 1762년 總統(總管 또는 鎮戍)伊犁等處地方將

果斯[河] 양안에서 유목을 하도록 조치하고, 이어서 索倫營을 설치하여 소위伊犁四營¹⁰⁾을 형성하였다.

索倫營은 처음에 6旗였으나 1767년 2旗를 증설하여 八旗體制를 갖추었다.

營은 左右의 兩翼으로 나누고 左翼의 四旗는 에벤키[鄂溫克]족으로 구성되었고 고르코스 河 서쪽의 奎屯, 薩瑪爾, 齊齊罕, 博羅呼齊爾 등에서 유목했기 때문에 ‘東四旗’라고 부른다. 우익은 다구르[達斡爾]족으로 구성되어 고르코스[霍爾果斯]河 동부의 霍爾果斯, 富色克 등에서 유목, 농경을 하였기 때문에 ‘西四旗’라고 부른다.

이리장군의 절제를 받는 滿族 출신 領隊大臣 한 명이 惠遠城에 주둔하면서 總管과 副總管 各 1員, 佐領 8員, 驍騎校 8員, 防禦 2員, 委官 8員, 空金頂 8員, 世襲雲騎尉 1員, 空藍翎 9員, 委筆帖式 2員, 前鋒校 4員, 前鋒 36員, 令催 32員, 披甲 1,038名으로 소론영의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들의 무장은 활 1,158자루, 화살 통 1,058개, 전투용 화살 44,450枝, 腰刀 1,058자루, 戰馬 1,100匹 이었다.¹¹⁾

관명의 녹봉은 惠遠城의 滿洲營의 표준녹봉보다 낮았다. 總管이 일 년 祿俸은 130兩, 茶 12斤, 副總管과 佐領은 105兩, 茶 12斤, 雲騎尉는 42兩 5錢, 茶 12斤, 驍騎校는 60兩, 茶 12斤, 委筆帖式과 領催가 36兩, 茶 6斤, 卡倫侍衛의 月俸 1兩, 鹽菜銀 2兩5錢, 口糧 60斤 茶 1근, 披甲의 일 년 錢糧銀 24兩이었다.¹²⁾

軍(약칭 伊犁將軍)으로 승격하였다. 1762년(乾隆27年)부터 1911년(宣統 3年)까지 존속하였다. 1764년 이리장군은 이리의 惠遠城에 좌정한 이래 초대 明瑞에서 마지막 額勒渾에 이르기까지 57대가 이어졌다. 만주인이나 몽골인 만이 이리장군직에 보임되었다. 伊犁爲新疆總漕之區 既經設立將軍.凡烏魯木齊巴里坤所有滿洲索倫察哈爾綠旗官兵 皆聽將軍總統調遣. 至回部與伊犁相通.自葉爾羌喀什噶爾以至哈密等處駐劄官兵亦歸將軍兼官. 其地方事務, 有各處駐劄大臣仍照舊例辦理. 再葉爾羌喀什噶爾等回城皆在邊陲. 如有應照伊犁官兵之處, 亦准各處大臣咨商將軍, 就近調撥(〈欽定平定準噶爾方略〉 續編 卷19 乾隆27年 10月 壬子條. 阿拉蘇奧其爾; <清代伊犁將軍 論稿〉 民族出版社, 1995.

10) 소위伊犁四營은 소론[索倫]營, 시버[錫伯]營, 차하르[察哈爾]營, 오이라트[厄魯特]營을 말한다.

11) 永保, 總統伊犁事宜, 北路總說, 伊犁編.

12) 佟克力, <清代伊犁駐防索倫營始末>, 新疆大學學報, 2006年 1期.

소론 영을 비롯한 伊犁四營은 모두 변경의 경계 업무와 타르바가타이 [塔爾巴哈台, Tarbaghatai]와 카슈가르[喀什噶爾, Kashughar]에서의 순환근무 즉 환방업무, 그리고 카자흐와 키르기스[布魯特, Kirkiz] 국경선 순시와 중요한 군사작전 뿐 아니라 수시로 이리장군의 명을 받아 각종 전역에 투입되었다.

乾隆初年 소론영 領隊大臣 관할의 카룬¹³⁾은 무려 10여 개소에 이르렀는데 그중 몇 개는 상설 카룬이고 나머지 몇 개는 첨철(添撤)카룬이다.

첨철(添撤)카룬의 임무는 유목을 관리하고 도망자 수색, 무역 감독, 산림의 관리, 나룻터 관리, 대로 및 금지구역 감시 관리, 외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것 등이다.

이런 카룬은 아래와 같다.

• 고르고스[霍爾果斯] 카룬 : 侍衛 1員, 委官 1員, 소론병 30名으로 구성한다. 매년 9월 눈이 내릴 무렵 소론영 본부에서 10명을 파견하고 博羅呼吉爾 카룬에서 空藍翎 1員이 10명을 인솔하여 파견되었다.

고르고스에 이르면 “開齊(交界處)”밖에 “布克申(伏兵)”¹⁴⁾를 설치하고 인원

13) 카룬(卡倫, karun ; 만주어로 招探, 邊卡, 招探 등으로 한역된다. 청대의 카룬은 세 종류가 있는데, 第一種은 黑龍江 및 新疆의 변방 중지에 설치한 것이고 第二種은 전투 행군시 병영의 앞에 배치한 초병을 배치하는 것이고, 第三種은 내지의 요지 즉 예를 들면 吉林의 二道河등에 인삼의 불법채취를 막기 위한 초소 등을 말한다.

第三種의 경우는 常設과 間設의 두 종류가 있다.

(商鴻達, 劉景憲, 季永海, 徐凱 編著 ; <앞의 책>, 1990, p.133)

間設 카룬에는 雅克什謨特布赫卡倫[yaksime tebuhe karun ; yaksime(雅克什謨 ; 關, 막는 다), tebuhe(特布赫 ; 있게 하는 것, 설치하는 것 盛, 裁, 種, 裝)의 의미로 잠정적으로 설치한 카룬의 의미]이 있으며 상설 카룬은 恩特赫謨特布赫卡倫[enteHEME tebuhe karun ; enteHEME : 영원, 항상]이 있다.

淸制에 의하면 전자는 삼개월마다 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봄에 설치했다가 겨울에는 철수했다. 吉林省의 依罕阿林河卡倫, 舒蘭河卡倫 등은 이에 속한다.

光緒 11년(1885년) 紅松을 보호하기 위해 요처에 카룬을 9월에 설치했다가 다음해 3월에 철수한 것으로 馬當溝卡倫, 柳樹河卡倫, 雷擊礮卡倫 등은 添撤카룬이라고 하고 또는 暫設카룬이라고 한다(光緒 <吉林通志> 卷15).

14) “開齊” 즉 交界는 만주어에서 ‘Gūsihiya’ 몽골어에서 ‘kili’라고 표기한다.

(田村實造, 今西春秋, 佐藤 長 共編 ; 五體淸文鑑 譯解 上卷, 1966, 京都大學校 文學部 內陸アジア研究所 p.187, 574, 998)

의 무단이탈,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다가 다음해 3월이 되면 해당 空藍翎 1員은 본대로 귀대하였다.

• 齊齊罕 카룬 : 현황과 지도 내용侍衛 1員, 소론 委官 1員, 소론병 15명, 오이라트병 5명으로 구성되어 소론영과 오이라트영이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 奎屯 카룬 : 侍衛 1員, 소론 委官 1員, 소론병 15명, 오이라트병 5명으로 구성되어 소론영과 오이라트 영이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 惠番 카룬 : 시위 1명, 소론 委官 1員, 소론병 40명, 오이라트병 10명으로 구성되어 소론영과 오이라트영이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이 카룬은 중요한 요새로서 일찍이 시버족 賀葉爾 文克津이 이 카룬에서 換防兵으로 일 년의 임기를 마치고 쓴 <惠番卡倫來信>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중요한 사료이다.

• 博羅呼吉爾 카룬 : 시위 1員, 소론 空藍翎 1員, 소론병 30명, 오이라트병 10명이 주재하여 소론영과 오이라트영이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이곳은 매년 봄 카자흐 유목민이 와서 유목하는 곳으로 봄이 되면 滿營에서 관리 1員, 병사 5명을 파견하여 유목을 감시하다가 겨울철 폐장하면 본대로 돌아갔다. 이때 博羅呼吉爾 카룬에서 파출병 10명을 차출하여 고르 고스 [霍爾果斯]의 국경지대에서 布克申[伏兵, bukushen]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 空鄂羅鄂倫 카룬 : 시위 1명, 소론 空藍翎 1員, 소론병 30명, 오이라트병 10명으로 구성되어 소론영과 오이라트영이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 霍爾果斯 安達拉¹⁵⁾ : 소론 관리 2명, 소론병 30명이 주둔하며 매년 카

“布克申” 즉 伏兵은 만주어에서 ‘buxiha cooha’ 몽골어에서 ‘bukushen cirik’라고 표기한다. (羽田亨 : <滿和辭典> 昭和 47年 國書刊行會, p.54, ‘buxin’으로 표기함)

15) ‘안다라[安達羅, Andala]’는 중간에 있는 역참 즉 ‘腰站’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dala ; on the way, midway, halfway

Andala Giyamun(衙門) ; a post-station along the route

(Jerry Norman ; <A Concise Manchu-English Lexic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Seattle and London 1978, p.17)

자흐 족이 와서 유목할 때 이 안다라를 설치하며 감독하였으나 겨울에는 철수하였다.

• 圖爾根布克申 : 소론 空藍翎 1員, 소론병 20명이 주둔하면서 매년 9월에 설치하고 3월에 철수하였다.

이외에도 齊齊罕 安達拉, 河岸, 奎屯色沁 등의 안다라는 고르고스 안다라와 같이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철수하는 添撤카룬이다.

건륭 이후 국내외의 정세가 날이 갈수록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도시와 정착지등이 날로 증가하여 이리장군은 수시로 카룬과 臺站¹⁶⁾을 증설하여 소론영 영대 대신이 관할하는 카룬과 대참은 가장 많을 때는 20여 개 처에 이르렀다.

4. 소론영의 換防과 駐戍카룬

1) 환방임무

소론영의 타르바가타이와 카슈가르 환방임무는 소론영이 조성되면서부터 시작하였다.

환방은 시버, 차하르, 오이라드, 만영의 관병과 같이 가족을 거느리지 않는 단기 주둔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초기에 시버 소론 병 130명을 포함한 함께 1,200~1,300명의 관병이 만주 혹은 몽골관원이 인솔 하에 타르바가타이 남북의 카룬이나 대참에 주둔하면서 주방와 순찰을 하고 2년에 한번 교대했으나 타르바가타이의 주방능력이 갈수록 강화되어 소론시버족 관병을 각각 100명 정도 줄이고 3년을 주기로 한 번씩 교대

16) 臺(台)站 : 옛날, 주로 공문을 보내거나 죄인을 압송하는 데 이용된 국경 근처의 역참.

하였다.

그러나 1864년 이리에서 농민기위가 일어나자 환방제도는 일시에 파괴되었다.¹⁷⁾

카슈가르는 남강의 중진으로 천산남록의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으로 청조는 거듭 신강을 통일한 뒤 오래지 않아 1770년 이리의 四營에서 정기적으로 관병을 파견하여 정기적인 환방제도를 실시하였다. 換防兵에는 당연히 소론 시버 차하르 오이라트 滿洲官兵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뒤에는 오로지 소론 시버 관병만 파견하였다.

소론관병의 환방 역시 가족을 거느리지 않은 것이었으며 각營의 관병은 윤번으로 교체하였다. 1780년대 이전 카슈가르에는 소론 시버 관병은 각 96명이었다. 1786년 또 소론병 200명을 파견하여 카슈가르에서 주방하고 아울러 정착목축을 하게하였다.

1798년 청정부는 매년 카슈가르에 300명의 환방병을 파견하여 소론 시버병 반을 교대하였다. 1803년 카슈가르 주변의 제 부족이 안정되자 300명의 소론 시버병을 이리로 철수시켰다. 단 1816년 카슈가르의 형세가 다시 악화되어 일시적으로 환방을 회복하였으나 1864년 신강전역에서 농민기위가 일어나자 환방은 완전히 정지 되었다.¹⁸⁾

키르기스와 카자흐족 경계선을 순찰하는 것도 소론영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다.

매년 가을, 이리장군은 “派兩滿營協領一員, 惠遠城 滿營官二員, 兵 七十名,

17) 1851(咸豐元年) 중국내지에서 ‘太平天國의 亂’이 발발한 이래 ‘捻軍의 亂’, ‘陝甘回民의 亂’ 등이 계속 일어나 청조의 통치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시대였다. 이무렵 신강에선 協餉(다른 省에서 보내주는 원조식량)이 완전히 단절되어 각족 군민의 생활이 급격히 악화되어 1860년대는 특히 정세가 대단히 험악하고 혼란스러웠다. 1864년 6월에 庫車에서 발생한 농민기위는 위그르족 및 회족이 중심이 되어 마치 이슬람 교도의 반란을 연상시켰고 전 신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에 발생한 이리농민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苗普生, 田衛疆 主編; <新疆史綱> 新疆人民出版社, 2004年, p.367)

18) 齊清順, 田衛疆; <中國歷代中央王朝治理新疆政策研究>, 新疆人民出版社, 2004, p.369에 선 당시 카슈가르에서 ‘孜牙墩’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巴燕堡城(惠寧城)官一員, 兵四十名, 錫伯營官 一員 兵三十名, 索倫營官一員 兵三十名, 察哈爾營官二員 兵六十名, 厄魯特營官二員 兵七十名 共官十員, 兵三百名”.¹⁹⁾

일년에 한 번 1,000km가 넘는 카자흐 변경을 순찰하고 격 1년 마다 다시 키르기스 변경을 순찰한다. 이외에 청정부는 카룬 순찰제도를 규정하고 이리의 사영에서 공동으로 관병을 파견하여 이를 집행하게 했다. “伊犁沿邊大小卡倫七十餘座, 周圍地逾千里, 各卡相離數十里至百餘里之遙, 每卡僅設弁兵十餘名及三十餘名不等. 惟按月周巡, 可期聲勢聯絡. 其索倫, 錫伯, 察哈爾, 厄魯特四營, 每月派總管, 副總管, 佐領等官一員, 各帶本營兵丁三十名, 于該管卡換次行查, 至各營交界會哨, 其中隔大山, 無路可通及所管各卡倫隸于境內者, 均每須巡查會哨, 統計各營每月派官兵會哨一次.”²⁰⁾

소론營은伊犁四營에서 비교적 비중이 높은營이었다. 1820~1828년에 신강남부의 카슈가르, 양기히사르[英吉沙爾], 야르칸드[葉爾羌], 호탄[和田]에서 8년간 지속된 “자항기르[張格爾]의 亂(一名 西四城의 亂)”이 발생하였다.

반란이 일어나자 카슈가르 參贊大臣 斌靜이 파견한 領隊大臣 色普征額은 카슈가르의 환방병인 소론 시버 등의 관병을 이끌고 반란을 토벌하여 반란군 50여 명을 살해하고 100여 명을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다. 1824년 자항기르는 수백 명의 반군을 이끌고 阿賴嶺을 넘어 입경하여 烏魯克 카룬을 약탈하고 소론시버 관병을 괴멸 시켰다. 1825년 10월 자항기르는 대거 카슈가르로 진격을 기도했기 때문에 소론시버 관병은 도중에서 이를 차단하였으나 幫辦大臣의 용병이 졸렬 부당하여 많은 백성을 살육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부역자가 생기고 청군은 괴멸하였다. 이때의 戰役에서 소론시버 관병은 35명이 죽었다. 이후 자항기르는 3,000~4,000여명의 반군을 규합하여 동년 말 청 정부는 慶祥을 카슈가르 參贊大臣으로 임명하고伊犁四營에서 관병 각각 100여 명을 조발하여 파견하였다.

19) 永保；〈總統伊犁事宜營務處應辦事宜〉.

20) 清仁宗實錄 卷 254.

1826년 자항기르는 세 번째로 반란을 일으켜 慶祥이 지휘하는 소론시버 관병이 토벌에 나섰으나 적세는 갈수록 강성하였다. 카슈가르가 함락되자 慶祥은 자살하고 소론시버와 滿營兵 가운데 겨우 800여 명이 포위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나머지 3城(양기히사르, 야르칸드, 和田)도 연이어 함락되었다. 이 직전에 청 정부는 伊犁將軍 長齡을 揚威將軍으로 陝甘總督 楊遇春을 서리하고, 山東巡撫 武隆阿를 參贊軍務로 하여 중국내지 각성에서 36,000명을 조발하여 하였는데 이 중에는 소론시버, 만주관병 2,000명이 天山山脈 南麓의 바로 밑에 있는 악수[阿克蘇]에 진출하였고 많은 소론시버 청장년들이 예비병으로 후방에서 대기하였다.

1826년 9월말 파병된 소론시버, 만주관병들은 악수 남쪽의 渾巴什河에서 반군과 교전하여 10여 명이 전사했으나 적병 1,000명을 살해하는 전과를 올린 후에 청정부로부터 많은 勳褒賞을 받았다. 1830년 코칸드에서 자항기르의 형 유스프 호자가 남강에 침입하자 이리에서 원병이 도착하기 전에 이리장군은 카슈가르 시버족 출신인 領隊大臣 額爾古倫에게 소론시버 환방병을 인솔하여 진압에 나설 것을 명령하였다.

이들 환방병은 일시적이거나 반란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었으며 이리에서 원병이 악수에 도착하자 1830년 말 유스프 호자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다.

1847년과 1857년 남강에선 “일곱 호자의 반란”과 “倭里罕의 반란”이 일어나 이때에도 소론시버 관병이 출동하여 반란토벌에 나섰다.

1863년 여름 러시아군은 몇 차례의 탐색 끝에 소론營이 지키는 博羅呼吉爾 카룬을 습격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뒤에 발생할 농민기의나 러시아의 이리점령을 예고하는 전조였다고 하겠다.

2) 八旗駐防軍으로서의 소론영

1871년 5월 러시아는 이미 구축한 그들의 군사보루에서 대거 博羅呼吉

爾 카룬를 넘어 이리로 진격하였다. 소수의 소론시버 관병은 괴멸적인 타격을 받고 러시아군은 6월에 이미 고르고스 하를 넘어 阿克肯特 前哨에서 이리방어군과 대치하였다. 청군은 阿里瑪圖에서 阿克肯特 前哨에 이르는 전선에 소론시버 관병을 포함 몽골, 위그르, 카자흐, 한, 회족 등 4,000명을 동원하여 방어에 나섰으나 우수한 무기와 엄한 군기로 무장한 러시아 군에 단숨에 격파되어 이리는 함락되고 말았다.²¹⁾ 이른바 10년 동안의 식민 상태가 시작되는 이리사건이 발생한 것이다.²²⁾

21) 자세한 戰役의 사정은 修克力的 <앞의 논문> 참조.

22) '이리사건(1871~1881)' 일명 '쿨자이리의 다른 이름'사건은 18세기부터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청의 신강통일이 이루어지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청조와 러시아는 1851년 伊犁通商條約, 1860년 北京條約, 1862년과 1868년 陸上貿易章程, 1864년 타르바가타이 조약에 의해 국경부근에 無稅貿易權과 국경을 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이 지방에서 특수한 지위를 얻었고 청은 신강에 둔전을 실시하고 성곽을 수축하는 등 양측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다. 이 지방에서 이슬람교도들의 동요가 이어지고 19세기 전반에도 반란이 계속되었다. 러시아령의 중앙아시아 투르크 계 주민들도 같은 이슬람 신자였기 때문에 러시아도 계속 신경이 곤두선 상태였다. 1864년부터 신강에 東干과 타란치들의 정권이 몇 개 들어서면서 청의 통치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였다. 더군다나 1865년에는 코칸드에서 야굽 백이 침입하여 이리를 제외한 전역이 그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1860년대 말에 코칸드, 히바, 부하라 한국을 병탄한 러시아는 경쟁상대인 영국과 터키가 손을 잡는 것을 예방하고 야굽 백이 이리를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871년 러시아의 투르크스탄 총독은 불시에 이리를 점령하였다. 청은 당연히 러시아의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청이 신강의 질서를 회복하면 철수하겠다는 대답만 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1875년 左宗棠은 신강을 회복하자 청은 崇厚를 러시아의 크리미아에 있는 리바디아에 보냈다. 崇厚는 500만 루블의 배상금과 영토의 할양을 약속하고 돌아왔으나 청 정부는 崇厚의 분별없는 약속에 격분하여 그를 잡아 사형을 선고하고 비준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긴장하고 개전의 기운이 돌았다. 그러나 영국이 중재에 나서 청은 崇厚를 석방하고 1881년 曾紀澤이 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이리조약(러시아에서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조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리지방은 淸에 반환하고 사이산 노르 동부의 4만km²는 러시아에 할양하며 아울러 900만 루블을 러시아에 배상하는 한편 신강 전역에서 러시아에 무역을 개방하기로 하였다(苗普生, 田衛疆 主編; <新疆史綱> 新疆人民出版社, 2004年, p.369), (アジア 歴史事典Ⅰ-214~215, 平凡社 1985年).

東干[東干, Dungan]; 중국의 甘肅, 新疆에 살며 중국어를 말하는 이슬람 신자로 "回民"이라고도 한다.

纏回(이슬람을 신봉하는 위그르 족을 말한다. 이들이 터반을 두르기 때문에 부친 호칭이다)에 대해 "漢回"라고도 한다. Dungan이란 말은 18~19세기 동투르크스탄의

소론시버족이 동북에서 서쪽 변경 신강의 이리지방으로 이주한 목적은 둔전과 주방 및 환방이 목적이어서 이들은 이리에 배치된 뒤에 끊임없는 훈련과 일년에 한번 정도 이리 팔기병의 “哈什圍”²³⁾라는 군사연습에 참여해야 했다.

청정부는 팔기군사훈련을 바탕으로 한 훈련규정을 정하여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팔기병은 도태시키며 도태된 병사들은 봉은을 잃게 되어 시버영에서는 일시에 60畝 정도의 농지를 잃기도 했다. “哈什圍”란 만주족 전래의 수렵형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수렵형식에 군사목적을 접합시킨 것이다.

매년 8월 이리의 사영에서 協領, 副總管 등의 관원 57명 각 영에서 선발된 소론시버, 오이라드, 차하르 병 1,000명을 사열하고 장군, 참찬대신 등의 지시사항을 전하였다. 일종의 소수민족들의 합동기동훈련인 셈이다.

이 훈련은 哈什河일대에서 각 영의 병사들은 일정한 대형을 유지하고 돌격과 진격, 우회, 포위 등 각종의 전술훈련을 실전처럼 치루고 마상무예, 보전, 창검술, 활쏘기, 조총 시합 등의 경쟁을 통해 각 영들의 교류와

투르크 족, 러시아 인, 유럽인들이 사용한 말로 자칭은 아니다. 청조와 민국의 문헌에는 “東干” 또는 “通光”으로 쓰고 있으나 어느 것이나 正史에는 보이지 않는다. “중국인으로 이슬람을 믿는 자” 또는 “진실로 종교에 귀의한 자”, “잔류자”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정설은 없다(アジア歴史事典 I -p.107, 平凡社 1985年).

타란치[塔蘭奇, 塔蘭池, Taranchi]; 천산산맥의 북방 이리지방에 살고 있는 투르크 계 주민의 일종으로 이말은 농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원래 천산산맥 이남 타림분지 주변의 오아시스에서 농경을 하고 있던 위그르 계의 투르크 족이다. 청조가 천산남북을 통일하고 농경을 개발하기 위해 1760년 먼저 악수에서 300명을 이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1767년 화진, 야르칸드, 우스, 쿠물 등지에서 6,000호를 징발하여 이리 하의 관개수로에 정주시켰다. 이들은 여전히 이슬람교를 믿을 수가 있었다. 이후 1862년 타란치 정권을 세우기도 하고 러시아가 이리조약에 따라 이리를 반환하자 러시아의 세미레에치에로 이주하여하여 러시아의 보호를 받기도 했으나 러시아 혁명 이후 다시 이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졌다. 현재 카자흐스탄에 60,000여 명의 타란치가 있다고 한다(アジア歴史事典VI -p.117, 平凡社 1985年).

23) 만주어의 ‘hašambi’는 포위하다. ‘주위를 차단하다(圍遮)’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명사화 한 것 같다(羽田亨: <滿和辭典> 昭和47年 國書刊行會, p.197).

인화를 도모하고 전투력을 제고 하였다.

每年八月間，由哈什演圍之時，派惠遠城協領二員，官員十六員，兵三百六十名，巴燕岱(惠寧城)協領一員，官員五員，兵一百名，錫伯索倫兩營副總管一員，官五員，兵七十名，索倫官五員，兵七十名，察哈爾營副總管一員，官八員，兵一百三十名，厄魯特副總管一員，官十二名，兵二百七十名，共官五十七員，兵一千名。本處開單呈閱，將軍，參贊大人傳飭該營，照數派官兵，預備定日起程。²⁴⁾

몇몇의 관원들은 20여 년의 군인생활에서 십여 차례나 이 전술훈련에 참가할 정도였다. 소론영의 군관민은 천재와 인재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인구감소를 겪었다.

첫 번은 건륭말년 갑자기 인구가 격감하여 병력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어 순찰과 초소 유지에 곤란을 겪을 정도였다. 일설에는 전염병이 유행이라고도 하고 일설에는 카자흐족과 충돌을 겪으면서 인구가 격감했다고도 한다. 당시 伊犁將軍 保寧은 소론영의 실상을 직접보고 1797년(嘉慶 2年)에게 상주하여 시버영의 18~23세의 건장한 청년들을 소론영으로 보강해줄 것을 요청하고 다음해 초에 이를 운허 받고 18~23세의 건장한 青年戶 160戶 658명을 소론영에 보충하였다.²⁵⁾

1820~1828년 자항기르의 난, 1830년 유스프 호자의 난에 청 정부는 당시 카슈가르에서 환방중인 소론 병과 이리에서 파견한 소론 병을 투입하여 많은 희생을 당하였다. 더군다나 소론족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낮아서 심각한 병력고갈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때문에 1833년(道光 13年) 10월 이리장군 特依順保는 상주하여 다시 한번 시버족 건장한 18~23세의 青年戶 100戶, 621명을 선발하여 索倫營 西四旗, 즉 布特哈索倫四旗에 편입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사료상에 자주 등

24) 永保；總統伊犁事宜 營務處應辦事宜.

25) 이 당시 전란에 의해 이루어진 인구격감을 제외하고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전염병 특히 天然痘의 만연이 그 원인인 것 같다. 이외에 시버족은 察布查爾 病이란 토착 병에 감염되어 많은 인적 손실을 당했는데 소수 민족 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빈곤 함 등이 그 원인이라 하겠다.

장하는 “錫伯索倫” 또는 “索倫錫伯”이란 말은 이들 시버戶를 가리키는 호칭이 되었다.

1864년 이리에서 농민기의가 발생하자 소론 영은 기의군의 공격목표가 되었다. 1865년 말 여러 차례의 공격을 받은 소론영의 대부분은 拱宸城으로 후퇴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성이 함락되자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1866년 4~8월 소론영의 다구르, 시버족과 일부분의 차하르 군민은 세 무리로 나누어 러시아 영토로 들어갔다. 러시아는 이들을 구구우스, 카라타라, 카이바르, 아라무트 등에서 농경과 방목을 하게 하였다. 1868년 말 청과 러시아의 여러 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러시아에서 곤궁한 생활을 하던 소론영의 군민들은 타르바가타이 경내로 들어오고 1875년 완전히 타르바가타이 성에 이입되었다.

청정부는 이들 관병과 알타이로 철수한 소론시버 관병을 합쳐서 “索倫部尖銳營”을 조성하였다. 1882년 청정부가 이리를 러시아에게서 돌려받은 뒤 이들 “索倫部尖銳營”의 소론시버족들은 모두 이리로 돌아왔다. 塔城(一名 타르바가타이)에 남아 있던 소론영의 다구르 시버족은 1895년 塔爾巴哈台新滿營에 편입되었다.²⁶⁾

1881년 청과 러시아 사이에서 맺어진 이리조약에 따라 러시아는 고르고스 河 서쪽 지구가 러시아의 영토로 들어가게 되자 索倫營西四旗의 군민들은 불가피하게 고르고스 河 동쪽으로 이주하였는데 다음해 말 청 정부는 伊犁八旗를 회복하였다.

회복한 索倫營은 현 霍城縣水磨溝와 紫泥河 사이에 축성을 하고 史稱 不嘎善[fe ga san]²⁷⁾을 회복한 소론 영은 ‘設領隊大臣 一員, 總管 一員, 不總管

26) 현재 塔城에 남아있는 다구르 족이나 시버족은 이들의 후손이다(修克力; <清代伊犁駐防索倫營始末>, 新疆大學學報 2006年 第1期).

27) 만주어로 ‘fe ga san’이라 한다. fe ; 오래된, 옛, 원래의 gasan ; 村新, 향촌, 성곽 (羽田亨 : 앞의 책, p.128, 157)
1930년대 말에 낡은 성을 수축 복원하였는데 이는 ‘ice gašan’이라 한다.
ice : 새로운, 朔日, 엄색하다. (羽田亨 : 앞의 책, p.223)

一員, 佐領 八員, 驍騎校 八員, 防禦 四員, 委筆帖式二員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소론영은 “戶口 正黃旗九十四戶二百三十丁口, 鑲黃旗九十七戶一百八十丁口, 正白旗九十五戶一百九十四丁口, 鑲白旗九十七戶二百四十六丁口, 正紅旗九十九戶二百五十丁口, 鑲紅旗九十七戶一百八十四丁口, 正藍旗九十七戶一百九十四丁口, 鑲藍旗九十五戶二百四十九丁口, 職業職官 九十四, 馬步甲七百二十八, 閑散一百五十九, 孤二”였다고 한다.²⁸⁾

회복한 소론영은 여전히 둔전과 駐防卡倫의 임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들이 수비한 카룬은 河源 카룬을 비롯해 登無, 차간오보, 尼堪, 紅山嘴, 哈爾素胡爾 카룬 등이 있다.

5. 맺는 말

이리 혁명이 발생하면서 청의 이리 통치는 사실상 끝나고 팔기제 역시 종말을 고했다. 이에 따라 소론영의 군민은 병역의 의무에서 해방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의 霍城縣伊車嘎善錫伯族鄉의 시버, 다구르족은 모두 이 소론영의 후예들이다.

索倫營西四旗에는 다구르 족 이외에 에벤키[鄂溫克]족도 있어 西遷時에는 2,000명에 이르렀다. 이외에 일부의 오로촌[鄂倫春, Orochon]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워낙 숫자가 적어 지금은 거의 파악이 안되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은 청말의 수없이 발생한 대소 전란과 전염병에 희생되어 전 부족이 희생되는 비극을 맞이하였다. “……原來翁湖魯(鄂溫克)索倫只剩一、二家, 其餘均系錫伯營調補之人”²⁹⁾

1958년 기록에 의하면 신강에 잔존한 에벤키 족은 2,000여 명이다.³⁰⁾

28) 袁大化 等; 新疆圖志 卷 44.

29) 綏定縣志, 清沿革事記.

또한 소론영 東四旗의 다구르족은 西遷時 근 2,000명에 이르렀는데 1958년 통계에 의하면 역시 2,000명 정도만 남아있다고 한다.³¹⁾

이들 소론계 에벤키, 다구르, 시버족 등 18세기 중기 이후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진 각종의 전란과 빈곤, 지배민족의 가혹한 수탈 등으로 인해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에서도 소수민족에 속하는 이들은 민족적 구심력을 형성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민족적 구심점을 형성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이다.

18세기 이래 이들 소수민족은 신강뿐 아니라 중국전역의 각종 전역에 동원되어 막심한 인적 손실을 당하고 중국의 국경선 확정과 영토 확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수사적 걸치레에 그치고 말았다.

필자는 2004년 여름 伊犁와 塔城의 시버족, 滿族, 다구르족 등의 自治縣을 방문 했을 때 느낀 점이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한어는 물론 위그르어, 러시아어, 카자흐어 등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물론 주변에 많은 소수민족 생활권이 있기도 했지만 다른 강한 민족 사이에서 살아야 했던 소수민족의 경험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이 민족주의를 주창할 수 없다는 확신 아래 중국은 이들 소수민족을 시혜적으로 보호하고 있어서 는 것이다.

이미 시버어, 다루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소수민족은 거의 없고 그들의 민족적 자존심은 서서히 한족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인다.³²⁾

현재 다구르, 시버족 등 소론시버영을 형성했던 소수민족은 신강의 13대 소수민족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나 漢族이나 위그르족에 비하면 인구가 현저히 적다.

30) 陳玉書；〈略論鄂溫克族的內源問題〉，民族團結，1962年 5~6號.

31) 中國科學院民族研究所內蒙古少數民族社會調查組；達斡爾族簡史簡志合編.

32) 현재 察布查爾 自治縣의 시버족 민족학교는 중학교만 있으나 학생 수의 부족으로 점차 폐교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2004년 현재 통계에 의하면 전체 신강의 인구 1963.11만 명 가운데 소수민족은 1182.86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60.2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위그르족은 897.67만 명으로 신강성 인구의 45.73%, 카자흐족 138.16만 명 7.04%, 滿族은 2.41만 명 0.12%, 시버족은 4.08만 명으로 0.21%, 다구르족은 0.67만 명으로 0.03%를 차지하며 기타민족은 10.79만 명으로 0.55%에 불과한 형편이다.³³⁾

현재 중국정부가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은 중앙아시아 이슬람 문화권과 종교적, 문화적 동질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독립을 주장하는 위그르, 카자흐, 키르기스족의 분리주의 운동이다.

이들 가운데 카자흐, 키르기스족은 중국국경 밖에 엄연한 독립국가를 건설한 민족이고 위그르족은 국가는 없지만 거의 전원이 철저한 무슬림이며 신강최대의 소수민족으로 가장 위협적인 경계의 대상이다. 완전히 한화되다 시피하고 인구가 7,000명도 안되는 다구르족이나 4만 명 정도에 불과한 시버족에게서 민족주의적 민족운동은 현재로선 전혀 일어날 수 없다.

주제어 : 이리[伊犁], 伊犁將軍, 소론[索倫], 소론시버[索倫錫伯], 駐防, 換防, 소론 다구르[索倫達斡爾], 西遷, 부트하[布特哈, Butha], 차하르 우리아수테이 장군, 八旗

www.kci.go.kr

33) 新疆維吾爾自治區統計局 編；〈中國新疆－2005〉, 新疆人民出版社, pp.30~32, 2005, 疆社會科學院的 苗普生 副院長은 실제로는 위그르족이 한족 인구보다 많은 1,000만 이상을 상회하는 최대의 민족이라고 주장하였다.

■ Abstract ■

The Formation and Collapse of Solon Barrack[索倫營]
during Qing Period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Nam Sanggeung

In the year 1755, Qing Dynasty destroyed nomadic state 'Jungar[準噶爾]' of Northern Xinjiang[北疆] which is located in the northern area of Tian Shan Mountains[天山山脈] of Xinjiang. In succession, Qing Dynasty conquered southern Xinjiang[新疆] completely and settled present Xinjiang. Eventually, Qing Dynasty built a great empire unprecedented in history.

But northern Xinjiang region was a strategically important place which Russia had aimed at continuously. It was not only a fine pasture which nomadic tribes who has refused to yield to Qing Dynasty, such as Kazakh[哈薩克] and Kirghiz[黠戛斯, 布魯特], had watched an opportunity to occupy but also a trade road connected to central Eurasia by way of Steppe Route. Hence, it was a strategically important place which Qing Dynasty absolutely never gave up and wanted to keep preserving by all means.

Qing Dynasty recruited many soldiers from the other places and immigrants who had to do the duty of cultivating a Garrison Farm[屯田], maintaining their fort[駐防], and executing rotation defence[換防] in order to defend northern Xinjiang looked like a vacant land. As the target of supplementaries, the tribes of Tungus descent and Mongolian lineage were chosen.

The tribes of these Tungus descent are Evenki[鄂溫克], Orochon[鄂倫春],

Dagbur[達斡爾], and Xibe[錫伯].

These Tribes are generally called as solon. Mongolian descendants include minor Mongolian tribes as well as Chakhar[察哈爾] and Oirad[額魯特].

Key words : Ili, Ili General, Solon Barrack, Solon Dagbur, Solon Xibe, Maintaining their fort, Rotation defence, Karun, Western March, Butkha, chakhan, eight banners[八旗]